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SJ,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상황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중간 전망치는 올해 두 차례 더 금리 인하
- WSJ: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하락

#### [물류]

- WSJ: 관세 따른 미 수입 급증 사라졌다

#### [무역 전쟁]

- YahooFinance: 딥시크, "AI 모델 훈련비 29만 4천 불에 불과"
- YahooFinance: 중국, 구글의 반독점 조사 중단...대신에 틱톡 이슈 논의

#### [주택]

- WSJ: 미 모기지율, 어디로 갈까?

#### [오일]

- Bloomberg: IEA, 원유 수출 증가 전망...중동의 전력 사용량 감소로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Reuters: 마스터카드, "올해 미국 연말 쇼핑 성장 둔화할 것"
- TechCrunch: 메타, 스마트 글래스 공개...디스플레이 및 손목밴드 컨트롤러 탑재
- Bloomberg: Amex, 플래티넘 카드 연회비 895 달러로 인상...혜택 추가
- WSJ: 일회용 커피 컵은 사라질 수 있어
- Bloomberg: Amer Sports 전망치 상향 조정...브랜드 성장 재가속화로

#### [미국 경제]

##### **Bloomberg: Powell Rallies Fed Colleagues as Economic, Political Risks Grow**

##### **연준 중간 전망치는 올해 두 차례 더 금리 인하**

- 어제 수요일 연준이 0.25%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며, 연준의 중간 전망치는 올해 금리 인하가 두 차례 더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의 금리 인하 전망 횟수보다 한 차례 더 늘어난 것이다.
- 그러나 6명의 위원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여전히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였다.
-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관련한 입장 내부 갈등을 결속시키면서 중간 입장을 보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도전적인 상황인데다,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 시장 약세에 따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 **WSJ: U.S.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하락**

- 지난주 미 신규실업청구건수가 그 전주의 26만4천건에서 23만1천건으로 감소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그러나 전체적인 실업 청구건수는 1백92만건으로 줄었다.
- 한편 노동시장은 둔화하고 있는데 일자리 성장 속도는 줄어두고 있고, 실업률은 8월에 4.3%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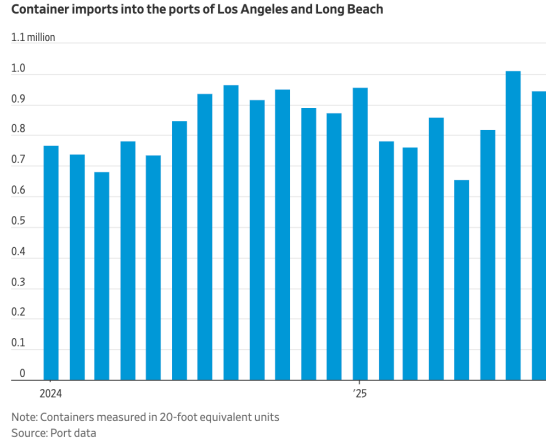
WSJ 기사

#### [물류]

##### **WSJ: Surge of Imports Into Southern California Ends**

## 관세 따른 미 수입 급증 사라졌다

- 올해 9월과 10월에 LA와 롱비치 항만의 화물 수입 물동량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당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크게 비축한 후, 올해 8월의 경우 수입 물량이 전월 대비 6.6% 줄어든 94만4천8백32 컨테이너를 기록했다.
- 관세와 무역 정책, 소비 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WSJ 기사

## [무역전쟁]

### YahooFinance: China's DeepSeek says its hit AI model cost just \$294,000 to train

#### 딥시크, “AI 모델 훈련비 29만4천불에 불과”

- 딥시크는 자사의 R1 모델 훈련비로 29만4천불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쟁 업체의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 관련한 경쟁 구도에서 중국의 입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퍼질 전망이다.
- 이 회사는 이 같은 훈련에 엔비디아 H800 반도체 5백12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이 회사의 최근 내용은 오늘 수요일 Nature지에 발표됐다.
- 지난 1월 딥시크가 가격이 낮은 AI시스템을 공개하자 이 같은 새로운 모델이 엔비디아 등 선진국 AI 위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기업들의 주식이 크게 하락했었다.

YahooFinance 기사

### YahooFinance: China drops Google probe as focus turns to Nvidia, TikTok

#### 중국, 구글의 반독점 조사 중단...대신에 틱톡 이슈 논의

- 미국과 장기간 복잡한 무역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틱톡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수개월간 진행해온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엔비디아 반도체를 국내 기업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보복 대상의 범위를 좁혀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오는 금요일에 만난 후 틱톡의 미국 매각 관련 이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 [주택]

### What Decides Where Mortgage Rates Go From Here

**미 모기지율, 어디로 갈까?**

-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율 또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 미 모기지율의 주요 기준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이 사하거나 재융자하기 전에 30년 만기 모기지를 보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 1년 전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하한 후 2개월이 지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5% 상승했고, 평균 모기지율은 약 0.75% 상승했다.
- 그러나 시장이 올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통제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율이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어 모기지율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지표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인플레를 부추길 수 있게 된다.

WSJ 기사

**[오일]****Bloomberg: IEA Sees Lower Oil Use in Mideast Power, Boosting Crude Exports****IEA, 원유 수출 증가 전망...중동의 전력 사용량 감소로**

- IEA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우디 및 이라크산 원유를 더욱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EA는 전력을 이루는 혼합물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0%에서 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IEA 사무총장 Faith Birol은 사우디와 이라크가 2035년까지 각각 하루 50만 배럴, 22만 배럴을 수출 혹은 기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Reuters: US holiday shopping growth to cool this year, Mastercard forecasts****마스터카드, “올해 미국 연말 쇼핑 성장 둔화할 것”**

- 마스터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플레 및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할인과 프로모션을 찾기 시작하면서 올해 미국 연말 매출 성장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스터카드는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매 매출이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 올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의 기간이 짧아지면서 판촉행사 또한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초 온라인 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 올해 연말연시 온라인 매출 예상치는 7.9%로, 작년 8.6% 증가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매장 매출은 2.3% 성장이 예상되는데, 작년 2.8% 증가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Reuters 기사

**TechCrunch: Meta unveils new smart glasses with a display and wristband controller****메타, 스마트 글래스 공개...디스플레이 및 손목밴드 컨트롤러 탑재**

- 메타가 레이벤 선글라스 브랜드와 협업한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다.
- 이 글래스 안에는 앱, 알림, 길 안내를 위한 내장 디스플레이가 오른쪽 렌즈에 장착되어있다. 또한, 미묘한 손동작을 감지하는 ‘메타 뉴럴 밴드’라는 손목 밴드로 제어도 가능하다.
-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등 메타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번역을 볼 수도 있다.
- ‘메타 뉴럴 밴드’는 화면이 없고 사용자의 작은 손동작으로 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어 기능을 해준다. 배터리 수명은 18시간이며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이는 9월 30일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799달러이다.

TechCrunch 기사

**Bloomberg: Amex Boosts Platinum Fee to \$895, Adds Resy and Lululemon Perks**  
**Amex, 플래티넘 카드 연회비 895달러로 인상...혜택 추가**

- Amex(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플래티넘 신용카드 연회비를 200달러 인상해 895달러로
- 인상한다. 동시에, 약 1,500달러 상당의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 혜택에는 Resy 레스토랑에서 연간 400달러의 식사 크레딧, Lululem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달러 크레딧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또한, Fine Hotels&Resorts를 통한 예약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600달러 크레딧을 주는데, 이는 이전 200달러보다 3배나 늘어난 액수이다.
- 이러한 연회비 인상으로 Amex는 프리미엄 소비자 신용카드의 최상위로 다시 올라섰다.

Bloomberg 기사

**WSJ: That Single-Use Coffee Cup Could Be on the Way Out**  
**일회용 커피 컵은 사라질 수 있어**

- 북미 및 유럽 기업과 정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치, 보조금, 벌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QR 코드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해 컵 반납과 환불을 자동화하여 높은 반납률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 RFID는 페스티벌 같은 붐비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컵을 반납할 수 있게 해준다.
- 미국의 경우, 규제가 부족하고 구매시 포함된 보증금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으로 재사용 컵 활용률이 낮지만, 보스턴대학교의 사례와 같은 높은 벌금은 효과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Amer Sports Lifts Forecast as Arc'teryx Growth Re-Ac**  
**Amer Sports 전망치 상향 조정...브랜드 성장 재가속화로**

- Amer Sports는 자사 브랜드 Salomon Softgoods와 Arc'teryx의 강한 실적에 힘입어 3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매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상단 2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 12~13% 가이드نس 상단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전망 발표 이후 Amer Sports의 주가는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